

“부활은 기독교를 만든 원동력” 남가주 부활절 연합 예배

“신앙의 핵심은 부활,
부활의 핵심은 영생”

남가주 교계가 부활절을 맞아
각 지역별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LA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 주
관으로 2025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4월 20일 오전 6시에 평화
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거행됐다.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
장단 회장)는 ‘부활의 복음’(요한
복음 21:1-6)이란 제목으로 설교
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며,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영
생’이다.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 “부활 복음의 두 번째 능력
은 ‘변화’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님의 세 번의 질문에 동일하게 응
답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은
혜로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 주관으로 2025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평화교회에서 거행됐다. ©기독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활의 복음
은 ‘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
함이다.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며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
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옛것은 잊고 새롭게 되리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오전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거
행됐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고린도전서 15:50-58)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한 민경엽 목사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며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희망에

대해 말했다.

민경엽 목사는 “희망은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절망
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며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절
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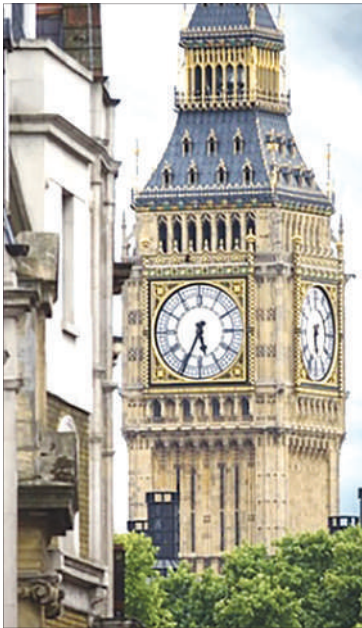
이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강도
들과 함께 처형 당하면서 모든 꿈

과 희망이 무너지는 절대 절망의
현실을 마주했다. 그런데 절대 절
망의 현실은 제자들이나 초대교
회 성도들만의 현실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육신은 썩고 시간 앞에 무력
하며 결국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
이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을 보
면 모든 인간의 끝은 절대 절망이
다”라고 일깨웠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모
든 성도들도 장차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날
에는 사망이 조롱당하고, 희망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희망
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며 소망
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 목사는 “모든 성
도는 이 절대 희망 안에서 견고해
져야 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믿
음으로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
쓰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
자”고 권면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pixabay

英 대법원 “女 법적 정의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

여성 인권과 법적 명확성 위한 역사적 판결

영국 대법원이 최근 ‘여성’의 법
적 정의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을 기
준으로 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성 인권 보호와 법적
명확성 회복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
미를 갖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공공
기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대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성별 대
표성에 관한 법률’(Gender Repre-
sentation on Public Boards Act

2018)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여성’의
정의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받은 트랜스젠더를 포함시켰다.

이에 여성인권단체 ‘포 위민 스
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
는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
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두 차례 패
소한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마침
내 승소했다.

대법원 부소장 패트릭 호지
(Patrick Hodge) 경은 판결문을 통
해 “법적으로 ‘여성(woman)’과 ‘성
(sex)’은 2010년 평등법 아래에서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법적 성 개념을 무너뜨릴 경우, 법
률 적용이 모호해지고 비논리적으
로 변질된다”고 밝혔다.

호지 경은 특히 “성별 재지
정’(gender reassignment)은 평등
법에 따른 독립된 보호 특성으로,
‘생물학적 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트랜
스젠더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성(sex)’ 개념의 명확성을 확
보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집단의 권
리 보호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You 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현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제74회 국가기도의날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롬15:13
2025. 5.1(목) 오후 7시, 중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NATIONAL DAY of PRAYER
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중현선교교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 월드쉐어USA CMF 가정 사역원
Soon Movement Global 남가주 장로 성가단
협력 단체: 남가주 각 지역 교협, 살롬센터, CBS 중보기도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협력 언론 기관: 크리스천 비전, 크리스천 위클리, 기독일보, Holy City Vision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헤럴드, CBS TV, 조선일보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실 두 가지

본지 주최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토렌스제일장로교회, 5/26-27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 예요. 정말로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파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적 논쟁도, 사회학도, 문화 심리학도, 신학 논쟁도 아닌, 성경 이야기라고 김귀보 목사는 말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곳에서, 열마든지 다른 전문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성경 이야기”의 전문

가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코로나 이후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설교”에 있다며 성경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가오게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특별한 문화, 상황, 사건, 인물, 배경, 내용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생동감과 감동이 문자 안에 갇혀 버렸다. 문자를 쪼개고 파헤쳐서 앙상한 뼈만 남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 힘내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다. 내러티브 설교는 그 이야기를 찾으려

는 노력이다. 문자화된 성경의 행간을 읽고, 글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당시 성경 속 인물들의 생동감을 되찾는 것이다.”

기독교일보에서는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를 초청해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26일~27일(월~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진행되며,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본문, 구성, 실습까지 배우게 된다.



기독교일보가 김귀보 목사를 초청해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독교일보

김귀보 목사는 전 교인이 유학생 15명이던 달라스 큰나무교회에 부임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때의 특별한 문화, 상황, 사건, 인물, 배경 등을 찾아내 성도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돕는 설교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 저서로는 『나의 길을 멈추지 마라』, 『거침없는 인도하심』 등이 있다.

세미나 등록은 QR 코드로 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점심과 교재가 제공된다. 주디 한 기자

일정: 5월 26일~27일(월~화)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문의: 213-739-0403.

지구촌교회, 김우준 목사 담임 청빙 결정

지구촌교회가 20일 오후 분당채플 분당에서 임시 제직회 및 사무총회를 열고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성도 97.6%가 청빙에 찬성했다.

지구촌교회는 지난해 10월 미래준비위원회(청빙위원회)를 출범해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했다. 교

회 측은 “분명한 원칙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 과정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 최종 후보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UC 버클리에서 학사,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석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와 철학박사

(Ph.D)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열린 지구촌교회와 위스턴 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현재는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김우준 목사의 목회 철학은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한다. 지구촌교회는 “이는 ‘평신도 선교사(제자)가 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제자 삼는) 교회’라는 지구촌교회의 비전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 지구촌성도들로 하여금 한층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는 “김우준 목사님 이상의 더 나은 선택은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지도자를 잘 분별해 선택하셨음을 축하한다”며 “김우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이며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진영 기자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들은 중앙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라스베가스교협 부활절 연합예배

라스베가스 한인교회협의회는 20일(주일) 오전 6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임인철 목사)에서 202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수 부활하셨다’(마가복음 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임인철 목사는 “부활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임사체험이나 일시적인 생명 회복이 아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며 “이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며, 이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예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며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라스베가스지역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토마스 맹 기자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토렌스조은교회

OTEFE 재단 한인 장학생 모집

OTEFE(Opportunity to Earn Future Education) 재단은 한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미국 거주 한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2025년 입학 예정자 포함)이며 총 선발인원은 00

명으로 최소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지급된다.

응모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웹사이트(www.otefe.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6월 30일 개별통지와 함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info@otefe.org

OTEFE 재단은 우수 한인 학생, 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이다.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5.5.18(주일) 6:30PM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합창단



LACS



하나라이어



LA 남성 선교합창단

주관 : World Share USA 출연 :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 하나라이어, LACS, LA 남성선교합창단
후원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다민족 연합 기도운동, 미주한인군목회, 기독교일보,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협력교회 : 예은 교회, 나침반 교회, 코너스톤교회, 갈보리 선교교회, 가스펠교회, 더 성기는 교회, 허튼교회, LA 시티교회, 미주평안교회, 함께하는 주은교회, 주님세운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가주 목양교회, 로렐교회, 샘물교회, 예수로교회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 1면 기사 <부활은 기독교를...>에 이어서
LA 동부 부활절 연합 예배
LA 동부지역 교회들은 2025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드렸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심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순호 목사(늘푸른교회)는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없었지만, 오직 부활절만이 중심이었다. 부활의 아침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그 믿음을 고백했다”며 “부활은 기독교를 만든 능력이며,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조명했다.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초기에 핍박을 피해 지하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초대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가 거기서 놀랐던 거는 그들이 잠을 자던 그 방이다. 그 방의 길이가 마치 어린이아처럼 작았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수 세대를 걸쳐서 이 지하에서 살면서 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오전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업 목사)에서 거행됐다. ©OC교협



베이커스필드 지역 교회가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렸다.

먹는 것이 빈곤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키가 자랄 수 없어서 이렇게 작아진 것이라고 했다.”
“로마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 한 300년, 10세대에 걸쳐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그들이 죽어간 묘지는 아주 작았다.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이 작아졌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소경으로 살아간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할 몸을 기다리고, 죽어도 살 것을 믿었다.”

베이커스필드 부활절 연합 예배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8개 교회가 함께 오전 6시 지구촌교회(김준태 목사)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고의용 목사, 총무 박순종 목사)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다. 고의용 목사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성령충만으로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며, 성령

충만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행4:24)을 인용하여, “성령이 생각과 가치의 기준, 과거 삶의 경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지라도, 함께 어우러지고 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고 목사는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수 부활하셨네” 뉴욕·뉴저지 한인 교회 부활절 맞아 부활 신앙 고백

2025년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
한인동산장로교회에서는 이종삼 담임목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 예수”(고전 15:20-26)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인류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분이며, 각각 그 차례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헛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무의미하다”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의어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부활의 첫 열매”(고전15:20-24)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생명과 소망의 근거가 됨을 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뉴욕장로교회-프라미스교회 연합성가대가 합창하고 있다. ©기독일보

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모든 수확의 시작이자 보증”이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 열매답게 준비되고 빛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인생에는 ‘차례’가 있다. 죽음도 부활도 순서가 있으며,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그림선교회 양준길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느니라”(

마 28:5-6)라는 본문을 통해 부활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양 목사는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지금도 모든 신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이 부활의 확신이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마가복음 16:1-7)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들은 천사의 외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다. 그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며 능력”이라며 “모든 성도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는 “제

삼일의 비밀”(누가복음 24: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3일의 법칙’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허 목사는 “성경에서 3일은 고통, 인내,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며 “예수님도 금요일의 고난, 토요일의 침묵을 지나,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 ‘3일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요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반드시 온다. ‘그래봤자 금요일이다. 3일만 참자’는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는 “살아계신 예수님”(마태복음 28:1-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기쁨과 확신을 회복했다”며 “오늘날 우리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든 신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하나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

Advancing Together As One!

예수 부활하셨네



제46회 총회장
김종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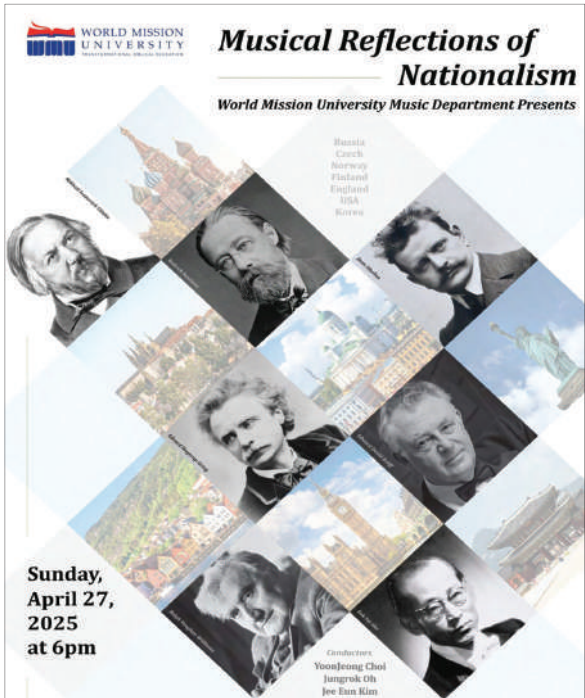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하나되어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되어 전진하는 미주성결교회!”
이 외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미주성결교회를 전진하게 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미주성결교회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 음악회 4월 27일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 음악회가 4월 27일(주일) 오후 6시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음악으로 표현된 국민주의(Musical Reflections of Nationalism)”로 미하일 글린카 작곡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Mikhail Glinka - Ruslan and Lyudmila - Overture), 스메타나의 몰다우,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귤트 모음곡(Peer Gynt’ Suite No.1, 2),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Finlandia), 랄프 본 윌리엄스 그린 슬리브스(Green-sleeves) 환상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의 윤임상 교수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목

숨을 바친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들이다. 서양 음악사적으로도 지난 19세기 초반부터 타민족으로부터 고통받는 아픔을 겪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음악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일들이 음악가들로부터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하나의 악파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일컬어 국민악파(Musical Nationalism)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족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태동된 안익태 작곡가의 한국 환상곡(Korea Fantasy)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곡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번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하니, 큰 기대가 앞선다. 이렇게 한국을 포함해 국민악파 작

곡가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을 또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고 설렘을 전했다.

윤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과 민족시인 월트 휘트만(Walt Whitman)의 시를 소재로 월드미션대학교의 Edward David Zelfiff 교수가 작곡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혼돈으로 인해 인류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 아픔들을 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함께 꿈꾸고, 노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민 여러분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문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213-388-1000).

쌈 · 연애 ·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크리스천을 위해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게 풀어나가는 연애와 사랑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크리스천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랑을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책 『비포 메리지』가 출간됐다.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어떻게 분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애의 목적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썸과 데이트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책임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준다. 특히 룯기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룯과 보아스,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천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산나의 하나님 말씀”과 “산나링크”로 많



은 크리스천과 소통하고 있는 저자는, 마치 교회 언니가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고 재미있는 말투로 내용을 풀어간다.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히며, 특히 각 주제마다 실린 나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백도 제공한다.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실제적인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사랑을 꿈꾸지만 막연한 불안과 고민을 가진 청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호산나
한동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MA) 석사를 마쳤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는 농부이자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으로 인도하고 싶은 결혼 전도사이다. 현재 ANC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며 유튜브에서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산나의 하나님 말씀”(@hosannabible)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른들을 위한 채널, “산나링크”(@sannalink)를 운영 중이다.

아름다움의 향연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연주회

은혜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풀러턴 칼리지의 정승재 교수(바이올린)가 ‘Orchestra Collective of Orange County’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협연한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는 3개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한 멜로디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다양한 음색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 협연은 피아니스트 Wan-Chin Chang (Soka University, Mira Coast College)교수, 첼리스트 Laszlo Mezo (Pacific Symphony, Chapman University) 교수와 함께 하며 지휘는 클레어 몬트 지휘 교수인 David Rentz가 한다. 이 공연은 브레이크아에 위치한 Curtis Theatre에서 4월 26일



정승재 교수가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를 협연한다.

(토) 오후 7시, 27일(일) 오후 3시에 하며 티켓은 Curtis Theatre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주님의 영광교회 5월 부흥회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특별한 부흥회가 열린다. 세계로금란교회의 주성민 목사를 초청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5월 1일~ 4일까지 요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5/1(목) ‘에브라임의 축복’, 5/2(금) ‘축

복의 가문을 만들자’, 5/3 (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5/4(주일) ‘믿음의 말’이란 소 주제로 진행된다. 주성민 목사는 북한에 20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213-749-4500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다,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제 1회
시니어
스크린 골프 대회

2025년 5월 20일 (화) 9AM - 12PM
Golf Plus La Mirada

150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83



- | | |
|------|---|
| 참가비 | \$20 |
| 참가인원 | 40명 한정 |
| 참가대상 | 만 65세 이상 시니어 |
| 상 품 | 각 조 1등 홍삼 3개들이 1세트 각 조 2등 건강 검사 키트 4종 패키지 참가 전원 풍성한 구디백 |
- *한 조에 4명씩, 총 10개 조

참가문의 888-847-3098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보수 교계 · 시민단체, 공정선거 위한 개혁 촉구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전환해야… 국민 주권 회복 절박한 과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와 전국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기”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주권 싸움의 본질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이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해온 친중 정치세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의 체제 붕괴 조짐과 이에 연계된 국내 세력의 쇠퇴를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선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왜곡, 외국인 투표 참여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혹 제기는 묵살되고, ‘부정선거’라는 표현조차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조기대선을 강행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의 주권 아래 놓인 행정기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

위 개혁도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이번 조기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주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총괄기를 통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 명령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며, 전자개표기를 금지하고 모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대선 후보들은 이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후재난과 경제 위기, 군부 분열 등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단절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친중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홍보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역 혐의로 법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계 단체는 물론, 전국불교예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요약.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순교한 순국열사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 법치 수호와 부정선거 적결을 위해 이번엔 목숨까지 바쳐 싸웠습니다. 이제 깨어난 국민은 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주권 싸움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과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체제에서의 비효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생하던 국내 세력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자수 조작, 전자개표기에 의한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서 노출된 불공정과 부정불법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이 선관위와 법정에 검증과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도리어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에서 가장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무결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 혹은 폐지할 권한이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조작과 왜곡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 1.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1.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도록 조치하라.
 - 2.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어떠한 구조도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못하게 즉시 개혁하라.
 - 3.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하라. 이는 부정의 시작이었고, 조작의 근원이었다. 선거는 본 투표 하루 혹은 이틀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 4. 개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독일과 대만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 수개표로 투명하게 진행하라. 5.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전적으로 협조하라. 6.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막고, 선거권 남용 방지 제도를 즉시 정비하라.

7 사전투표폐지와 완전히 수개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할 것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은 모두 선거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행위로 주권을 지킬 것이다.

● 2. 지금이 기회다 - 중국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다.

- 1. 중국은 기후재난, 경제 마비, 군부 붕괴 조짐 등으로 체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 2. 미국을 포함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실행 중이다.
- 3. 중국의 힘에 빌붙었던 국내 세력은 더 이상 외부 지원도, 내부 명분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및 친중 정치세력과 연결된 모든 인물 · 자금 · 홍보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국가보안법상 반역 혐의로 심판하라.
- 4. 이제는 모든 국민이 총괄기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공정선거를 되찾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김세환 기자

김양재 목사가 말하는 ‘건강하게 화내는 법’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17일 ‘김양재 목사의 OST’라는 코너에서 ‘건강하게 화내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심리학자 비벌리 엔젤은 화에도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가 있고,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가 있다고 말한다”며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는 상대와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는 누가 봐도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화를 내

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재 목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였다. 성벽이 다 지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방해꾼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청한다”며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 역사에 전념할 때라며 4번이나 거절한다”고 했다.

이어 “조정을 계속 거절하자 산발랏은 그를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역모의 소문을 낸다. 소위 악성 루머, 가짜뉴스로 곤경에 빠뜨린 것”이라며 “산발랏이 왜 이토록

느헤미야를 괴롭혔는가? 느헤미야로 인해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불안감을 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없는가. 상대방은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인데, 내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상대를 무안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에 대해 “일단, 상대방에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문제를 인식시키고, 감정과 필요를 전달했다면 이제 화를 풀어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

이 자기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 계속 화를 불등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음모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략임을 알았다”며 “그래서 산발랏과 달리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훼방받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며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략에 휘둘리지 말고 당

당하게 맞서라는 것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재 목사는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화나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이 말이 분해서 교회를 그만다니고 가정 회복을 포기한다면 사탄의 음모에 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화를 내는 것이 음모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학장 인사말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 | | | | | |
|--|--|---|--|---|---|
|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
|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
|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arin Stetina,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ical Studies</div> |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부활 하셨네

갈보리 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8:00am
2부: 11:00am
금요성령집회 08:00 pm
새벽예배 (월-금) 5:30am
교회학교 유/초등부 11:00 am
주일예배 중/고등부 11:00 am
EM청년부 09:30 am
금요모임 유/초등부 08:00 pm
중/고등부 08:00 pm
제자훈련 사역반 매주 수 10:00 am
& 성경공부 새생명반 매주 수 10:00 am



심상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722-4805



예수 부활 하셨네

라스베가스 우리좋은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본당
2부 오후 1:30 본당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교육관
유아/유치부 오전 11:30 교육관
수요예배 오후 5:00 본당
새벽예배 화-토요일 오전 5:50 본당



임명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email:329sunkyu@gmail.com



예수 부활 하셨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요일 오전 5:30



남덕중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840 El Camino Rd, Las Vegas, NV 89103
T. (702)686-0691 hope21ch@naver.com http://pilgrimch.com




예수 부활 하셨네

라스베가스 즐거운제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요일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예수 부활 하셨네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Kim Young Koo

예수 부활 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주소 및 전화

24325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예수 부활 하셨네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첫 남미 출신 교황 긴 여정에 마침표



프란치스코 교황 © 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현지시간) 오전 7시 35분, 바티칸 자택에서 선종했다. 향년 88세.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호흡 곤란 증세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기관지염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중 두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의 기도 속에 상태가 호전되며 3월 23일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교황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활절 주일인 4월 20일로,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자들을 향해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축복을 전했다.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22세에 예수회에 입회한 그는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스 대주교로 활동하며 빈민과 소외계층을 향한 헌신으로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2013년 3월,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가 교령을 이유로 사임한 후 열린 콘클라베에서 역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이자 예수회 출신으로 선출되며 266대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본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명으로 선택해, 가난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재임 12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 기후 위기, 가난, 난민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 고통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전쟁 종식과 난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활동에 집중했다.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즉위 이듬해인 2014년 8월,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과 윤치중 바오로 등 124위 시복식 집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홍은혜 기자

남아공서 납치됐던 美 선교사
총격전 끝에 ‘기적 생존’



미국 선교사 조쉬 설리번(가운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의 가족. ©SNS

미국 테네시 출신 선교사 조쉬 설리번(34)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트케이프 주의 거베하(QGEBERHA) 인근 마더웰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남아공 경찰청(SAP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설리번 목사가 총격전 끝에 무사히 구출됐으며, 해당 작전에서 용의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격렬한 총격 끝에 기적의 생존

경찰에 따르면, 설리번 목사는 거베하 시내 쿠와막자키(KWAMAGXAKI)의 한 은신처에서 억류 중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급습하던 중, 감시 중이던 차량에 있던 용의자들이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총을 발사했다. 이에 경찰이 정밀 전술로 대응하며 고강도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의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설리번 목사는 해당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신체적 손상 없이 무사한 상태로 즉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설리번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전하며, 사건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교 중 발생한 납치... 몸값 요구도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설리번 목사가 마더웰에 위치한 자신이 담임하는 펠로우십침례교회(FELLOWSHIP BAPTIST CHURCH)에서 설교 중 발생했다. 복수의 무장 괴한들이 교회에 난입해 그를 납치했으며, 이후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목사의 납치 이후, 미국 테네시

주 메리빌(MARYVILLE)에 있는 그의 모교회인 펠로우십침례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기도 운동이 펼쳐졌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 톰 해틀리(TOM HATLEY)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리번의 구출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교회 사무국장 헤더 셸리(HEATHER SHIRLEY)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출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온 바로 그 기적이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쉬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왔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강조했다. 셸리는 또한 “조만간 조쉬가 직접 자신이 겪은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남아공 정착 이후 헌신적인 사역

설리번 목사는 아내 메이건(MEAGAN)과 함께 2015년 성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남아공을 방문했다. 당시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한 뒤, 2018년부터는 마더웰 지역에 정식으로 정착해 교회 개척 선교사로 사역을 이어왔다.

펠로우십침례교회에 따르면, 설리번 목사는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해 현지 언어인 코사어(XHOSA)를 2년간 배우며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마더웰 지역에 펠로우십침례교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까지 활발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홍은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온라인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son 교차로)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써니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이수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10:50 토요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매(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초.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새소망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듬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45 주일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참람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MZ男 증가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대학교, © YouTube/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나그룹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 2025) 보고서에서 “미국 성인 중 66%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21년의 54%에서 12%p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바나그룹의 데이비드 킨나만(David Kinnaman) 대표는 “이것은 10년 넘게 본 것 중 가장 분명한 영적 쇄신의 추세”라며 “2021년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약 3천만 명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흥은 Z세대(1999~2015년생)와 밀레니얼세대(1984~1998년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세대 등 기성세대를 기독교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로 평가했던 수십년간의 리서치 데이터를 뒤집는 결과다.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했다”고 답한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남성은 2019년 이후 각각 15%p, 19%p 증가한 반면,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 여성의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고서는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한 것에 주목했는데, 약 30%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했다”고 답했다. 킨나만 대표는 “이 수치는 역대 최고에 가깝다”고 전했다. 그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응답자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 중 상당수가 ‘재활용된’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며 “젊은 세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새로운 계층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강력한 신호”라고 했다. 이는 2017년 바나그룹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해당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지만 교회 출석이나 기독교적 정체성을 종종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킨나만 대표는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킨나만 대표는 “이 데이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은 사역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지만, 주일예배 참석률을 높이거나 과거 부흥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40세 미만 연령대에서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증가하는 것은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영성’이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고, 뿌리 깊은 제자도를 함양해 이 중요한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나의 조사 결과는 25년에 걸쳐 진행된 130,029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이 중 3,579건은 2025년 초에 실시됐다.

이윤준 기자

‘선교지에서 선교 주체로’ 라틴아메리카, 세계 선교 미래 논하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라틴아메리카 선교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COMIBAM 대륙 선교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보도했다.

CDI는 이번 선교대회가 2017년 이후 처음 열리는 COMIBAM의 대륙 차원 공식 회의이며 대회 직후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COALA3.0 회의가 연이어 열린다고 밝혔다. COALA는 Christ Over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의 약자로,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아시아 지역의 선교 지도자들이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초대료 간 플랫폼이다.

이번 COALA3.0은 △차세대 선교 인력 동원 △단기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추진 △전략적 지역에서의 공동 사역 개발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CDI는 지난해 한국 부산에서 열린 COALA2.5 회의에서, COMIBAM 부국장이자 코스타리카 출신 베테랑 선교사인 알란 마타모로스(Allan Matamoros)가 라틴아메리카 선교의 여정과 글로벌 사우스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20세기 초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서구 선교 기관으로부터 ‘이미 복음화된 지역’으로 간주돼 선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1916년 파나마 회의를 통해 개신교 선교가 본격 시작됐고, 이후 하층민 중심의 복음 전파는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CDI는 198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첫 COMIBAM 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선교적 전환점을 이룬 행사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당시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선교지에서 선교 주체로”라는 비전을 선언하며 대륙 전체의 연합을 다짐했다. 이후 COMIBAM은 2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훈련 기관, 선교 단체,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현재 약 30,000명의 이베로아메리카 선교사들이 200개국 이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인도주의적 사역, 전문직 기반 선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 중이다.

마타모로스 부국장은 “우리는 자원이 부족할지 몰라도, 신뢰와 기쁨, 공동체 중심의 삶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문화적 유사성은 무슬림권과 인도권 등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효과적인 복음 접촉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I는 COALA는 글로벌 사우스 간 신뢰 형성과 전략 공유, 장기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마타모로스 부국장은 “처음엔 관계를 쌓고 의도를 선언했다면, 이제는 실제 협력으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선교 구조에서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북반구 지도자들이 대화를 주도하고, 남반구 지도자들은 언어와 자원의 제약으로 침묵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中, 5월 1일부터 기독교 탄압 강화하는 금지 조치 시행



기독교 박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인(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오픈도어.

외국 선교사들의 설교와 종교단체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중국 공산당이 5월 1일부터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미션 뉴스네트워크(Mission News Network)를 인용해 “새로 개정된 규정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설교를 하거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서적을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종교 기부를 받거나, 중국 시민을 종교 신자로 모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성직자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 내용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중국 국영 언론이 이러한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계 밖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종교단체들은 종종 정부에 의해 사이비 종교 또는 극단주의로 낙인찍힌다. 시 주석은 2016년에 처음으로 “종교적 충성심을 공산당의 우선순위에 부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교를 ‘중국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결과, 개신교 삼자교회 및 중국가톨릭애국회와 같은 국영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한 ‘승인된 통로’로 부상했다.

독립 가정교회 운동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았다. 중국 당국이 ‘정치적 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을 해체하려

하면서, 가정교회 신자들을 겨냥한 단속과 체포가 빈번해졌다.

워싱턴스탄드는 “올해 초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2024년에 이러한 단체들을 해체하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도가 증가했다’고 노골적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공안부 역시 “독립 종교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축소시키는데 전념하는 감시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움직임과 단체를 감시하고 공산당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관련된 개인’이나 ‘국가가 승인한 틀 밖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엄격히 통제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 대표들은 “새로운 규정은 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지만, 종교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블스포차이나’(Bibles for China)와 같은 단체들은 이미 국가의 제재를 받는 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교 노력, 특히 방면, 목회자와의 만남,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여 등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위한 외국에서의 자금 지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FRC)의 종교자유센터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 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중국이 외국 선교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中 ‘복음의 전사’ 복역 후 석방 당일 거리 전도

중국 후난성 형양시 출신의 복음 전도자 첸웬셴(Chen Wensheng)이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19개월을 복역한 후 4월 2일데산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복음 전도자 첸은 석방 당일 바로 아내와 함께 형양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차이나에이드(China Aid)’와 동역하며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한국 VOM의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복음의 전사’라는 별명으로 불려 온 첸웬셴은 거리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100회 이상 체포됐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총 700일이 넘지만, 석방될 때마다 거리로 나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내려진 징역형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첸웬셴은 2023년 8월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당국자들이 상하이 공항에서 그를 가로막은 뒤 형양으로 돌려보냈다.

2023년 9월 형양에서 구금 및 체포된 첸웬셴은 2024년 4월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6월 20일에는 1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2일 마침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

법원이 그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는 첫째, 중국 법원이 그가 여러 차례 체포 및 구금됐는데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가 청과물 시장과 교차로, 상점가 및 소수 민족 거주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 및 단체 전도 활동을 반복적으로 조직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첸웬셴은 2025년 4월 5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데산 교도소에서 형양 시에 있는 호텔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한 자유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현숙 폴리 대표는 “첸은 석방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수감되기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는 늘 그랬듯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으며 기쁨으로 찬양한다. 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결과 3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3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이윤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금)예배 오후 7:30 한아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주요예배 주일 오전11:30 수요일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रेस어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허준호 집사 초청 ‘The Holy One’ 콘서트

5/2-5/4(금-주일)

지난해 주영훈의 <새롭게 하소서>팀과 함께 “Beloved” 콘서트를 개최했던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오는 5월 <새롭게 하소서> 팀과 다시 함께 무대에 오른다. 5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감사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The Holy One”(주의 거룩한 자)이며, 배우 허준호, 싱어 송 라이터 조병진, 찬양 사역자 여

니엘, 작곡가 주영훈 씨가 함께한다. 러빙 지저스 워십의 줄임말인 러빙워십은 삶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시작된 문화선교단체로 다양한 집

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회 일정

5/2 (금)- 7PM 감사한인교회
5/3 (토)- 6PM 나성영락교회
5/4 (일)- 6PM 충현선교교회
콘서트 문의: 213-357-1565

부활절 새벽 열방 예배, 서울 국제 공원에서 드려

LA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4월 20일 부활절 새벽, 서울 국제공원에서 다민족 부활절 새벽 연합(열방) 예배를 드렸다. “EVERY NATION UNITED EASTER WORSHIP”이라는 이름으로 드린 이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 국제공원에서 다민족 부활절 새벽 연합(열방) 예배를 드렸다. ©LA 기독교교회협의회

제1부: 부활절 연합 감사예배
김숙영 교수의 반주로 시작된 제1부 예배는 방동섭 목사와 류당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후 홍영표 목사의 기도, 최아급 목사의 성경봉독 후 김병도 목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 헌금 시간에는 헤세드 찬양 울동단의 찬양과 함께 헌금을 드렸고, 김영배 목사 헌금기도, 김영구 목사와 이병만 장로가 축사가 이어졌다.

의 열정적인 찬양과 김숙영 교수의 특별순서, Mr. James의 음악 연주가 예배의 감동을 더했다.

제3부: 다국적 목회자들의 축사
다국적 목사들이 함께한 제3부에서는 American Minister Preacher의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하나된 믿음의 고백이 이어졌다.

제4부: 성찬식
‘아무 흠도 없이’ 찬송 후, 모든 참석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경건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제5부: 치유기도와 폐회
이후 환자들을 위한 치유기도 시간은 회중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채워졌으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찬양과 함께 예배는 절정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Dr. John Shipp 목사와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의 축도로 예배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부활절 예배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국적을 가진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다. 진정한 ‘열방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LA 기독교 교회 협의회 기사 제공

→ 1면기사 < 英 대법원 “女 법적 정의 ..에 이어서
아울러 “이 판결은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정의는 명확해야 하며, 그 명확성은 권리 보장 장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소식에 여성인권단체뿐 아니라 J. K. 롤링(J.K. Rowling) 작가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롤링 작가는 SNS를 통해 “세 명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여성이 전 영국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냈다”고 밝혔고, ‘섹스 매터스’(Sex Matters)는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게 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실질적이다. 여성 전용 피난처, 병원 병동, 탈의실, 스포츠 경기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만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안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일이 늘었다”며 “이번 판결이 그러한 역사별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보수당 케미 배드노크(Kemi

Badenoch) 대표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확대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은 모든 여성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는 여성의 법적 정의를 놓고 6년간 스코틀랜드 정부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 맞서 싸운 끝에 승리를 거두며, 여성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법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증명했다.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 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혁명(革命)이란 단어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혁명이란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혁명이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혁명이란 단어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혁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혈 혁명은 결코 조용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듭니다. 혁명이란 단어 대신에 전복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전복(顛覆)이란 뒤집는 것이며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밑에서부터 뒤엎는 것입니다. 전복이란 단어도 질서 붕괴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전

복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눅 1:49-53). 마리아가 드린 찬양 속에 조용한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에 대한 이미지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도를 부리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하-27).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혁명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난과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총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2-3).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전복은 무너뜨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화목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전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

시키셨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칼과 총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갈 3:28). 이전의 계급과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조용한 혁명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혁명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전복하고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존중의 새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은 폭력을 동반하지만 부활의 혁명은 평강으로 시작됩니다. 부활의 혁명은 폭력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부활의 혁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엡 1:20).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힘껏 외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유철 칼럼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승리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천공항에서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 후 한국 시간 밤11시30분, 프랑크푸르트 시간 16시30분에 도착하여 뉘셀도르프순복음교회 이진옥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을 달려 그 교회 집사님이 새롭게 개업한 ‘웰론’의 대성당 앞 한식당으로 갔는데, 날씨가 좋아 공원에 나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한참을 해매이다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이동해서 뉘셀도르프의 호텔에서 가서 여장을 풀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뉘셀도르프의 순복음 교회는 예배당 위치도 좋았고 건물도 크고 훌륭했습니다. 한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였지만 리더십의 교체 시에 어려움을 겪어 수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1.2부 예배에 학생들까지 생각보다 많이 모여 놀랐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좀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 마음이 밝아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흠어지지 않고 전부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 3부 예배처럼 뜨겁고 화목하여 오래도록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쉬고 싶었던 저녁 식사였지만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 장로님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기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 가정 자녀를 향한 기도예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귀한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유럽총회 부활절 금식 성회’의 첫날 예배는 계속되는 이동과 시차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콧물감기나 기침도 이기게 해주셨고 약한 몸도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면서 큰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각 지역,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등 630명이 넘는 최대인원 기록으로 모여 금식성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훌륭하지 않은 시설의 수양관에서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많이 참석한 학생부 110명은 마지막 수요일 오후에 ‘유럽 부흥(Renival Europe)’을 외치며 노방전도까지 나가 는 열정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지, 또 헌금으로 성회를 돕고 어려운 유럽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물질로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독일어로 통역했던 내과의사 장로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성



회가 되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고 카톡 인사를 남기기도 했고, 영국에서 온 성도님들은 무려 14시간을 버스로 이동하여 돌아가서는 금요일예배를 드리며 간증을 나누었는데, 받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다가오는 부활의 승리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누리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5/ 26(월)~27(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L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청년)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EM예배 오전9:00
금요일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office@thejoylife.org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365일 영혼의샘예배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에즈마이야 금요일집회 오후 8: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화~토-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효사랑선교회

HyoSarangus Mission

www.hyosarangusa.org



대표: 김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714)670-8004

평화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7시
Bible Academy: 수요일 저녁 7시



김은목 담임목사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251-9191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Anointing 찬양위십 오후 7:30



이황형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CA90710
T:(310)326-0300

새 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대흥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유치/유초등부예배 오전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수요일예배 7:00



김영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담임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8:30 am /10:30 am
수요모임 7:30 pm
새벽기도회 6:00am (화~금)/교회 및 zoom
소망열린학교 10:00 am (금)
주일학교 10:30 am
Youth Group 10:30am (주일)
대학부 10:30 am (주일)
한국학교(zoom) 9:30 am ~ 11:50 pm (토)
www.somangusa.com



성요셉 담임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1부 9:45 am/2부: 11:15 am
주일영어부예배 9:45 am
새벽기도회 월-금 5:45 am
수요제자훈련 10:30 am
금요찬양기도회 7:30 pm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곽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남재헌 담임목사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이봉하 담임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714)772-3100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영어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승혁 담임목사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748-6878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6: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신용환 담임목사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멜리데교회

주일 1부 오전 8:30 (본당)
2부 오전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본당)
토 오전 6:30
중고등부 오전 10:40 (1층 중고등부실)
유초등부 오전 11:00 (2층 유초등부실)




고귀남 담임목사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www.pubtheo.org
T.(310)738-0485



류준영 목사



[사설] 영국 대법, ‘생물학적 성’ 판결에 담긴 메시지

영국 대법원이 지난 16일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성차별을 금지한 영국의 ‘평등법’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영국 사회가 이른바 ‘젠더 이념’에서 탈출하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범주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시키자 스코틀랜드의 여성단체인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FWS)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이라고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그간의 ‘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결정이 아니라 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FWS도 성 소수자를 증오하려는 게 아닌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게 당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여성’과 ‘성전환 여성’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영국 법이 공식화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간 스코틀랜드 정부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영국의 ‘평등법’에 근거

해 여성의 법적 정의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한 셈이다.

영국 기독교인들과 교계 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복음주의 연맹의 영국 지부장 피터 리나스는 “이 획기적인 판결은 분위기의 변화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는 (영국이) 강경한 진보적 이념에서 벗어나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해리포터’ 작가로 유명한 J.K.롤링도 “FWS’가 자랑스럽다”라면서 “이번 승소가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영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가히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과 고용, 의료, 주거 등 ‘평등법’이 적용되는 민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평등법’ 시행 이후 성전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했던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시설에도 생물학적인 성 구별이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던 체육계도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영국 정부는 그동안의 성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스코틀랜드 차치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케미 배드노크 대표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며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은 모든 여성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15년 전 도입한 ‘평등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급속도로 확산한 유럽 내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영국의 이런 변화는 지난 1965년 인종관계법을 시작으로 1975년 성차별금지법 등 9개의 개별적인 차별 방지 관련 법이 2010년 11월에 ‘포괄적 평등법’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됐다.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 기존의 차별 금지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영국의 ‘평등법’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안락사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유화 확대: 영국 등에서 사회적 태도의 변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비율이 66%로 나타났고, 낙태와 안락사를 수용한다는 답변도 각각 48%, 47%로 나타나 1981년 조사에 비해 4~5배나 증가했다.

이런 영국 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낙태 센터 주변의 완충·배제 구역에서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와 일반인이 단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평등법’ 제정 이후 급진적인 ‘젠더 이념’에 불모 잡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국내외에 비쳐진 게 사실이다.

그런 영국에서 대법원이 여성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별 기준에 근거해 규정한 건 여성 인권 보호와 법적 명확성 회복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난 6년간 여성의 법적 정의를 놓고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싸워온 스코틀랜드 여성들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영국의 정치와 사법부에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명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 행정명령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처럼 이 판결이 스코틀랜드나 영국을 넘어, 성별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는 세계 여러 나라에 중요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은 분명하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성을 생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인정한 것이지만 남성 또한 이와 동일한 근거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평등법’ 시행으로 ‘LGBT’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주는 메시지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회를 엿보는 국내 정치권에도 분명한 경종이 될 것이다.

김한요 칼럼

예수님의 제자되기 원하는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견습생(apprentice)을 의미합니다. 이번 순교지 답방은 예수님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모두 십자가를 닮은 순교였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 감금되었던 감옥이 같은 감옥이었

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두 사람은 감옥 동창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에 다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간다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맘을 고쳐먹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끼꾸로 매달려 순교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로마에서 두 번 구금을 당합니다. 첫번째 구금시는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행 28:30). 이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을 썼다고 믿어집니다. 2년 후 석방되지만 당시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 뒤집어 씌우고, 그 본보기로 사도바울이 다시 구금되게 되고, 결국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지금 봐도 을씨년 하고, 실내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없는 겨울에 이 감옥에서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제자 디모

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자기 겔옷을 가져오라 합니다. 요즘 같이 택배가 되는 시절도 아니고, 디모데가 그 겔옷을 가져가는 시간만 해도 몇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로마에 재판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왔을 때는 로마에서 약 50km나 떨어진 삼관까지 마중 나왔던 로마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투옥된 지금은 그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방한복 한 벌 벗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다”(딤후 4:16) 남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어느 은퇴 목사님의 말과 겹쳐져 가슴 한 칸이 시려 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로 불렀던 안드레 사도가 순교 당한 파트라를 향한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파트라 도시 전체에 차량 통제를 하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어

서, 7시간 만에 다른데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어쩌면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에게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곳 그리스 파트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마침 아픈 총독의 아내를 안수하여 고쳐주게 됩니다. 이 계기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기 아내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내로 인해 총독은 안드레를 X십자가에 못박아 처형합니다.

X자 십자가 형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랜 시간 서서히 죽이는 처형이라고 하는데, 안드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험이...

\$18.99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www.j1mart.com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0시 45분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3114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T. 972-904-3509



김귀보 담임목사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마을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예수 부활하셨네

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화~토)



김진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main@wpca.org <https://wpca.or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침묵을 듣다

현대 사회의 불안과 고통 속,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침묵

헬무트 티리케 | 윤종석 역
두란노 | 172쪽
12,000원

영혼의 지옥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 하나님의 침묵
그 위대한 신비를 듣다!

깊어 가는 혼돈의 시대에
읽는 헬무트 티리케!
1942-1951년 격동기
독일 한복판에 울려 퍼진
열 편의 절절한 설교

책의 저자 헬무트 티리케는 나치 치하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요 윤리학자이며 복음주의 설교자다.

전후 비극과 불안에 짓눌린 독일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언자적 설교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에 실린 설교는 1942-1951년 독일 격동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풍랑의 시대를 뚫고 나온 그의 설교 10편에 담긴 선지자적 음성들이 오늘날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침묵과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영혼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공명하고 있다.

그 시대 독일의 격랑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고 싶은 진한 열망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불안과 죄책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럼에도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단순한 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작 내러티브로 마태복음 15장 21-28절에서, 한 가나안 여자의 절규 어린 간구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을 대조시키고 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마 15: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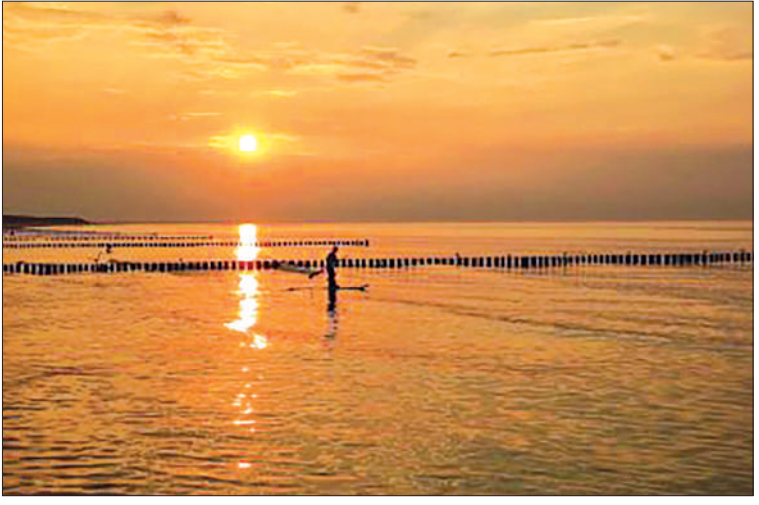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우리는 소리치고 절규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수천 번이나 왔다갔다 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대개 침묵 이면에 그분의 더 깊은 뜻이 있다(39쪽)”고 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의 신뢰’라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에게 큰 위로가 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또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 경험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필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삶에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한 소통’에 대한 논의



▲픽사베이

가 이어진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순히 기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헬무트 티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귀중한 책이다.

그의 깊이 있는 성찰과 통찰은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이종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고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7

For the Spirit God gave us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2 TIMOTHY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봄맞이 세일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니콜라스 마스

‘가정의 미덕’ 주목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가

베르메르 등에 영감 준 선각자
평범한 가정 모습 화면에 담아
수수하고 재치 있는 장면 감탄
가정 미덕 중시 기독교 가르침

전기 작가 아놀드 하우브라켄(Arnold Houbraken)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스(Nicolaes Maes, 1634-1693)는 대상을 부드럽게 포착할 수 있는 ‘숙련되고 매력적인 브러쉬’를 지녔다고 한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그가 인물과 옷차림, 기물, 배경과 기타 세부사항을 다루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네덜란드 도르트레히트에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마스는 유년시절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0대에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운 제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렘브란트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마스는 렘브란트에게 ‘오디니른(ordineren)’, 곧 역사화에서 이야기의 모든 측면이 잘 전달되도록 구성을 작성하는 법을 배웠다. 말하자면 화면 속 인물들의 포즈와 배치를 다채롭게 하여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익혔다. 이에 더하여 니콜라스 마스는 렘브란트 스튜디오에서 ‘하우

딩(houding)’ 기법, 즉 명암을 교묘하게 분배하고 색상의 강도를 조절하여 공간의 환영을 연출하는 수법을 익혔다.

이 같은 조형훈련은 추후 그의 작업 세계에 큰 힘이 되었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마스의 작업은 차츰 자신의 것을 찾아간다. 역사화(성경 그림)보다는 일상생활의 장면들을 포착하는 등 장르화의 혁신적 화가로 부상한다. 피테르 드 호흐(Pieter de Hooch)나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같은 유력한 장르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도 바로 니콜라스 마스였다. 이런 면에서 마스는 장르화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는 주로 가정의 평범한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아이를 재우는 여인, 바느질하는 여인, 양육하는 장면, 장보기와 채소를 다듬는 여인, 식전 기도를 드리는 여인, 성경책을 읽다 잠이 든 노인, 물레를 돌리는 사람, 시장에 다녀온 여인 또는 우유를 파는 여인, 집안일을 하다 깜빡 잠이 든 시녀 등.

일상생활의 모습을 포착할 때 마스는 암스테르담 스튜디오에서 배운 ‘오디네겐’과 ‘하우딩’ 기법을 활용하였다. 후기작은 장르화보다 우아하고 세련된 초상화에 치중했다면, 도르트레히트 시절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주목하였다.



니콜라스 마스, 레이스 짜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 45.1x52.7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마스의 수수하고 재치 있는 장르와 장면에 감탄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친밀한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마스가 예찬의 대상으로 삼은 장면들은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아리안 반 슈텔렌(Ariane van Suchtelen)의 말을 빌면, 어떤 예술가도 이런 주제를 그린 적이 없었고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처럼 마스의 장르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특별한 관심도 있었지만, 가정을 중시하던 당시 문화적 배경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도시의 권위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변형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데 두었다고 한다. 다른 유럽 지역보다 평균 가족 수는 4.75명으로 적었으나, 훨씬 더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때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가정의 미덕을 중시한 기독교적 가르침이었다.

한 예로 개혁교회 설교자 피트루스 위트브론헐(Petrus Wittewrongel)은 창세기 2장 1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으며 “머리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듯 신랑도 신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사랑을 순종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고양시켰다. “모든 우정과 사랑 속에 사랑의 불씨를 지피서, 부부에게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몸도 이끈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야곱 캣츠(Jacob Cats) 역시 남편과 아내를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맞물려도는 한 쌍의 뱀뱀에 비유함으로써,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에게 있어 결혼은 “동거”가 아니라 ‘연합’이었다. 부부는 “분주함과 안식 속에, 근심과 기쁨 속에, 손해와 이

득 속에, 오락과 노동 속에, 위험과 축복 속에” 함께하는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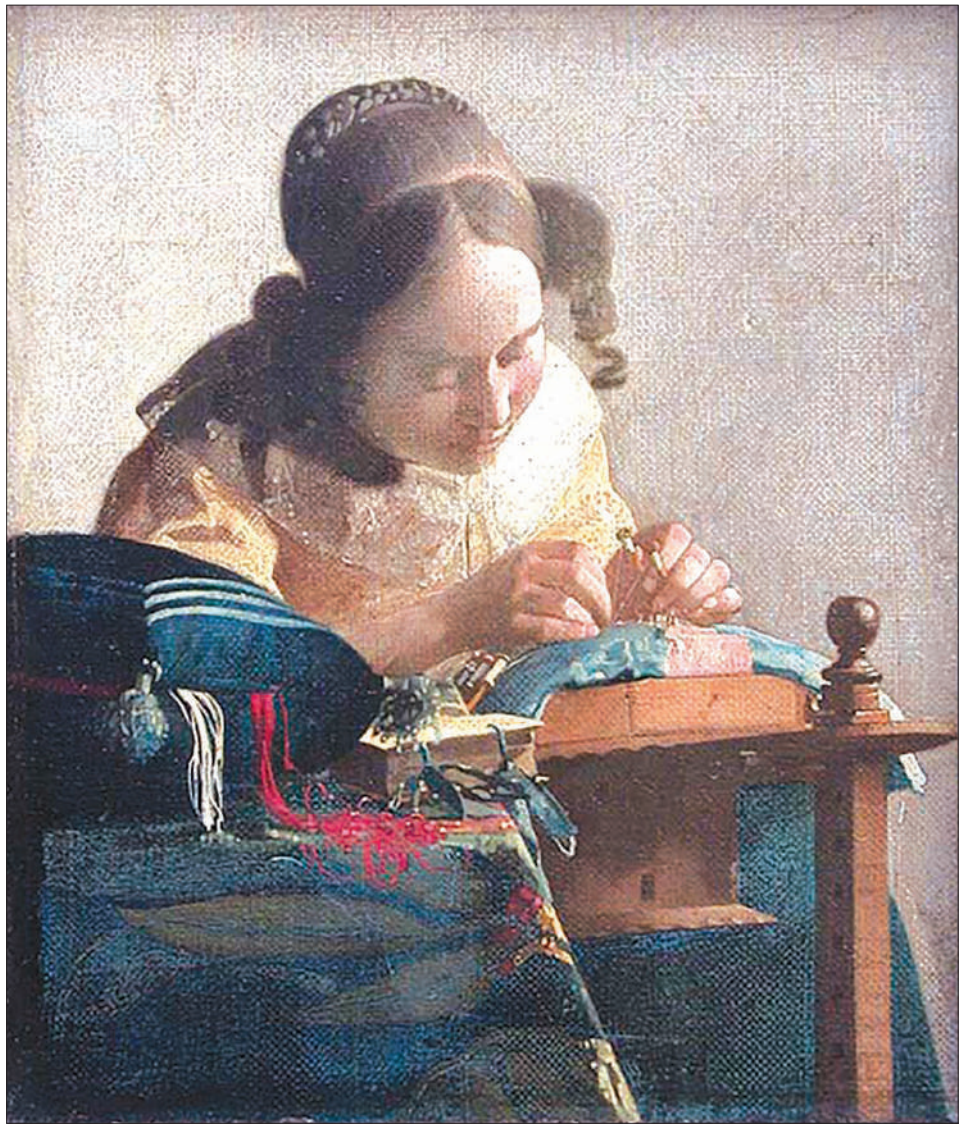
〈레이스 짜는 여인〉(1656)을 보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레이스를 짜고 있다. 화가는 젊은 주부가 양육과 가사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엄마 옆에서 살이 포동포동 켜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도 눈에 띈다. 아이의 손에는 자그마한 장난감이 들려 있는데, 엄마가 쥐어준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떨어진 컵은 아이가 무심결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집안의 무질서를 암시하기보다, 아이가 딸린 가정의 자연스런 모습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어머니의 상의, 아기의 모자, 그리고 식탁보의 빨간 색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흐르는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다. 남편은 출타 중이지만, 가정 내 훈훈한 온기를 느끼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급 가구나 장식물이 없지만, 사랑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동일한 모티브를 취한 베르메르의 〈레이스 짜는 여인〉(1669년경)은 마스의 작품보다 13년이나 늦게 나온 것이다. 두 작품의 차이는 제작 년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르메르의 수작 〈레이스 짜는 여인〉이 탁월한 솜씨로 일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되살려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마스는 여성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등장시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마스는 베르메르가 놓친 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금세라도 아빠가 집안으로 들어와 아이 뺨에 입맞춤을 하고 안아줄 것만 같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고 단란함 속에 피어난 네덜란드 가정의 절제와 행복을 보여준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레이스 짜는 여인, 24.5x21cm, 1669, 파리 루브르미술관.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 오직 은혜입니다!

❖ 오직 감사입니다!

❖ 오직 순종입니다!

He is Risen!

성화장로교회

2025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 213.447.3118 / 담임목사 이동진 / www.sunghwachurch.org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여대학청년부
4부예배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 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부활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

www.gcjc.org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E-Mail: glorygcjc@gcjc.org

WORSHIP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예배 1부 (전통예배) | 8:00am |
| 주일예배 2부 (영광예배) | 10:30am |
| 주일예배 3부 (청년예배) | 1:00pm |
| 주일예배 GCJM (영어) | 1:00pm |
| 주일예배 라티노(스페인어) | 5:00pm |

| | |
|--------------------|--------|
| 교구모임 TEAM(20대 청년) | 2:45pm |
| 교구모임 JABEZ(30대 청년) | 2:45pm |

| | |
|-----------|--------|
| 수요예배 | 7:30pm |
| 금요일예배 | 7:30pm |
| 새벽예배(월~토) | 6:00am |

CELEBRATE EASTER

His STORY does not end here

ANC 온누리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ANC 온누리교회가 이제 29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혼진들이 열매로 맺혀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NC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 | | |
|------------|-------------------|---------------|
| 주일예배 | 1부 | 7:30 am |
| | 2부 | 9:30 am |
| | 3부 | 11:30 am |
| | (Passion Worship) | |
| 금요워십 | 7:45 pm | (금) |
| 새벽기도회 | 5:30 am | (월-금)/6am (토) |
| 주일학교/중고등부 | 1부 | 9:30 am |
| | 2부 | 11:30 am |
| 영어회중(ANCC) | 1부 | 9:30 am |
| | 2부 | 11:30 am |
| 장애인 예배(GM) | | 9:30 am |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 김태형)

WWW.ANCONNURI.COM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체육관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헬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오후 7시 30분 / 본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 | 하나님의 나라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3가지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며(섬김), 이웃과 나누고(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전함) 한인교회로, 지역공동체와 한인사회, 미주와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더욱 힘을 내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예배안내

| | |
|---------|----------|
| 주일예배 1부 | 7:30 AM |
| 주일예배 2부 | 9:00 AM |
| 주일예배 3부 | 11:00 AM |
| 교육부예배 | 11:00 AM |
| EM예배 | 11:00 AM |
| 청년부예배 | 1:30 PM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www.lafgc.com

예배안내

| | |
|---------------|---|
| 1부 | 오전 7:30 본당 |
| 2부 | 오전 9:30 본당 |
| (열린예배) 3부 | 오전 11:45 본당 |
| 새벽예배 | 월 - 토 오전 5:30 / 본당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
|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
| 영아부 예배(0-2세) | 주일 오전 9:30, 11:45 / 본당 영아부실 |
| 유치부 예배(3-5세) | 수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2층 유치부실 |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9:30(영어), 11:45(한국어) / 구 교육관 |
| | 금요일 오후 7:30 (AWANA) / 구 교육관 |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30 (EM예배실),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 청년 예배 | 주일 오전 11:45 / 본당 |
| EM 예배 | 목요일 오전 9:30 / 신 교육관 |
| 실버드림대학 | 목요일 오전 9:00 / 신,구 교육관 |
| 토요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30 / 신,구 교육관 |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m YouTube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